

LNK(LoveNorthKorea) 주간기도(4월10일)

1. 북한에서 부활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북한의 믿는 성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 받는 고난과 박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음에도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전도를 합니다. 저는 북한에서 그런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쟁이가 되었습니다. 박해 속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포장해 놓은 복음의 가라지들은 다 날아가 살아 역사하는 생명력만 남습니다. 저를 전도한 분에게 물었습니다. “집에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내일 뭘 먹어야 할지 알 수 없는데 그걸 들고 가서 나눠 먹으면 다 죽지 않겠느냐?”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 한 줄 아십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내일의 양식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러분, 혼자만 살고자 하면 다 죽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나누면 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북한 당국에 의해 집과 재산을 몰수당하고 산골오지로 추방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이들과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제보가 보위부에 들어가서입니다.” 부활 신앙을 지키는 북한 성도들을 통해 더 많은 신앙 공동체가 북한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도한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을 맛보며 그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의 죽으심 가운데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하니 이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을 얻으려 함이다 내가 이것을 이미 얻었다거나 이미 이루었다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나는 그것을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애쓰고 있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그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빌립보서 3 장 10-12 절 말씀과 같이 오늘도 부활의 신앙으로 믿음을 지키는 북한 성도들을 통해 영광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해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주 예수 안에서 부요한 북한 성도들을 통해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북한 땅 가운데 충만케 하옵소서. 해방 이후 지금까지 사도행전적 교회가 북한 땅에 세워지게 하신 주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저들의 기도를 들으사 남북의 막힌 담을 허시고 자유로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령이, 살아 역사하는 복된 성도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영원한 부활 생명이 우리 속에 살아서 역사하는 신앙으로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북한에 전파되는 그 거룩한 사역에 우리도 힘써 참여케 하옵소서.

2. 적과 내통하는 불순분자 색출하라



북한 당국이 러시아 현지 노동자들의 호상(상호) 감시 강화와 더불어 ‘적들과 내통하는 내부 불순분자 색출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하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보위원들은 한국 라면을 먹거나 인터넷에 접속하는 자들의 손목을 분질러 놓겠으며, 걸리면 시범으로 체포해 조국으로 소환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국가보위성은 어떤 형태로든 남측과의 접촉이 늘어날수록 탈북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 반드시 장악·통제해야 할 현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러시아의 북한 노동자와 선교사들을 안전케 하시고 북한 노동자들을 향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기도한다.

“너는 흠 없는 자를 살피고 온전한 자를 주목하라 평화로운 사람은 미래가 있으나 범죄자들은 모조리 망하고 악인의 후손은 끊어지리라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로 말미암으니 여호와와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돕고 건지시되 악인들로부터 건지고 구원하시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께 피신함이라”

시편 37 편 37~40 절(남북한병행성경 북한어) 말씀을 주신 하나님,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우호 관계로 말미암아 선교 활동에 제한이 가해지고 러시아에 체류 중인 북한 노동자에 대한 감시와 통제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자와 그들과 접촉하는 선교사들을 안전케 하시고, 하나님만을 전적 신뢰하오니 더욱 사역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쁨뵈듯 임하셔서 북한 노동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역사하소서. 그들로 구원 얻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 진리의 말씀이 북한 전역을 뒤덮게 하소서



북한의 핵무력에 대응하여 승리를 담보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우회 전략은 북한 내부로 외부 정보의 유입을 더욱 활성화하는 것이다. 북한 안으로 정보를 유입하는 방법은 풍선 날리기, 비무장 지대 대북 확성기 방송, AM.FM 라디오 방송, 각종 휴대용 저장장치, 휴대 전화 등 다양하다. 북한 정권은 외부 정부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자유교양법'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법적 조치들이 무력화되도록 기도해야 하며, 이에 대항하여 한국에 대북정보유입촉진법(가칭)이 제정되어 대북방송과 한류 문화 콘텐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북한으로 적극 유입되도록 기도해야 한다.

“그대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그대들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말리신 일과 그대들이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두 임금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한 일을 우리가 들었으니 우리가 그 소문을 듣자마자 간담이 녹았고 그대들로 인하여 아예 얼이 빠져버렸소 이는 여호와 그대들의 하나님이 우로 하늘과 아래로 온 땅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오”

여호수아 2 장 10~11 절(남북한병행성경 북한어)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핵보다 더 위력 있는 무기인 외부 세계의 정보를 북한 내부로 유입하는 일이 날로 활성화되어 북한 체제의 견고한 진에 균열이 생기고, 이를 계기로 진리의 말씀이 북한 전역을 뒤덮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또한 현 북한 체제와 정권은 속히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집권 세력과 국가 운영 시스템이 들어서도록 북한 땅과 백성 가운데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 교과서에서도 통일 등 금지어 삭제



“공화국 민족 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한다”는 지난 1 월, 김정은의 시정연설 이후 학생들의 교과서에서도 ‘통일’을 지우기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데일리 NK 소식통에 따르면 올해는 교과서를 수정 편찬해 배포할 시간이 충분치 않은 관계로 임시방편으로 교과서 내에 있는 특정 금지 단어에 줄을 그어서 보이지 않게 하게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 남북이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되는 통일을 이루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이 뛰여난 지혜와 통찰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세우신 그의 선한 목적에 따라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이는 때의 완성을 위한 계획으로서 만유 곧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 장 9~10 절(남북한병행성경 북한어)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북한 수뇌부가 남과 북을 적대관계로 설정하고 통일이나 동족 개념 지우기에 나섰습니다. 한민족을 분리하려는 간계를 소멸하여 주시고 남북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분단의 빙장이 풀릴 때, 극한의 고통 속에 있는 북한 주민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하사, 남북의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 뇌물 아니면 되질 않아요



“북한에서는 뇌물이라는 게 아이 때부터 다 겪어오는 거라고 보면 돼요. 어른들이 하는 말은 ‘야, 갖다 고이라(뇌물 줘라). 고이면 다 된다.’예요. 뇌물 아니면 되질 않아요. 한 70~80%는 뇌물이라고 보면 돼요. 요즘은 뇌물 하면 다 달립니다. 음란물을 봤다 하면 기본적으로 농촌에서 제일 적게 받아서 300 달러 선부터?” 자유아시아방송에 나온 한 탈북민 인터뷰 내용이다. 통일부의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는 탈북민 2명 중 1명 이상이 뇌물 공여 경험이 있다고 밝힌다. 뇌물이 일상임을 방증하는 결과이다. 북한 땅에 공의와 정직이 회복되기를 기도한다.

“그가 정직한 자를 위하여 지혜를 쌓아두시고 온전히 행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며 정의의 길을 지키시고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호하신다 그때에 너는 공의와 정의와 공평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니”

잠언 2 장 7~9 절(남북한병행성경 북한어) 말씀을 주신 공의와 정직의 하나님, 뇌물 등 부패 행위가 만연한 북한에 공의와 정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욕죄는 감시와 통제의 고삐가 풀어지고, 특권층을 배불리는 뇌물 공여 행위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복음이 자유로이 전파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 물질이 아닌 하나님이 높임받는 북한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 처벌에도 점쟁이 찾는 발길 끊이지 않아



최근 북한 함경북도에서 사주풀이를 하거나 점을 보는 등 미신 행위가 성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난으로 삶이 힘겹다 보니 장거리 여행을 떠나도 되는지, 장사에 액운은 없겠는지, 심지어는 꿈자리가 뒤숭숭한데 별일이 없겠는지 등을 알기 위해 점쟁이를 찾는 주민이 증가했다. 북한에서 미신 행위는 사안에 따라 노동교화형의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워낙 삶이 팍팍해서인지 처벌 위험에도 점괘에 의존하는 모습이다. 북한 주민이 헛된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를 기도한다.

“당신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 내가 항상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당신께서 나를 당신의 교훈으로 인도하시고 나중에도 나를 영광 중에 맞아주실 것이니 하늘에서 당신 이외에 누가 나에게 있습니까 땅에서 내가 바라는 것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내 몸과 마음은 쇠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며 나의 영원한 분깃이십니다”

시편 73 편 23~26 절(남북한병행성경 북한어) 말씀처럼 주님밖에 사모할 자가 이 땅에 없습니다. 영원한 분깃이며 반석이신 하나님을 북한 주민이 알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그들이 세상의 헛된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히 붙잡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